

2020 국별 진출전략

벨기에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4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5
가. 대내외 정치·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5
나. 호조·부진 요인 혼재로 경제성장 다소 둔화 전망	5
다. 화학·의약 등 주요 산업 R&D 투자 지속	6
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산업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2. 시장 분석	16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16
나. 교역	16
다. 투자진출	19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21
가. 교역	21
나. 투자	23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4
III. 진출전략	25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5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6
3. 한-벨기에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4. 진출 시 유의사항	38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9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40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41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2
부 록	
對벨기에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3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 2020년 벨기에 경제성장률은 1.3%로 지난 3년간 벨기에 평균 성장률 1.6% 및 같은 기간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 2.3% 대비 낮은 수준으로 예상
- 신정부 구성 지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유로존 수출실적 악화 등이 성장률을 억제하는 반면, 법인세 인하로 인한 투자확대와 고용상황 개선, 이에 따른 소비 안정세가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 벨기에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2018년 1.4% 대비 다소 하락한 1.2% 수준으로 예상되며, 2020년 또한 1.3% 수준으로 성장둔화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지난 3년간(2016~2018년)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 2.3% 대비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벨기에의 평균 성장률인 1.6%도 밑도는 수준임

호조·부진요인 혼재로 성장률 다소 둔화

-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브렉시트 이후 유로존 지역의 무역 감소로 인한 수출 실적 악화, 정부의 재정적자와 유로존 평균 대비 높은 부채 수준에 따른 재정 정책 제약 등이 꼽히는 반면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국내 투자 확대와 기업 사회보장 지출 부담 축소 등으로 인한 고용상황 개선*, 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비 안정세가 성장률을 지탱할 것으로 예상됨

* 실업률 : 2016년 7.9%, 2017년 7.1%, 2018년 6.1%, 2019년 5.7% 예상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1.2	11.2	11.3	11.4	11.4	11.4	11.4	11.4
명목 GDP	십억 달러	521.1	531.9	455.4	468.1	495.2	554.9	563.5	570.8
1인당 명목GDP	달러	43,640	44,588	45,375	46,346	47,463	49,075	50,463	
실질성장률	%	0.2	1.4	1.4	1.5	1.7	1.7	1.5	1.3
실업률	%	8.5	8.5	8.5	7.9	7.1	6.4	6.1	5.6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0.5	0.6	1.8	2.2	1.7	1.8	1.7
재정수지(GDP대비)	%	-3.1	-3.1	-2.5	-2.5	-1.2	-1.1	-0.9	-1.0
총수출	백만 달러	275,861	278,522	228,358	225,746	247,018	281,354	289,513	297,619
(對韓 수출)	"	1,586	1,831	1,431	1,073	1,273	1,496	1,539	1,582
총수입	"	306,162	312,152	267,645	272,575	294,346	335,610	347,356	357,429
(對韓 수입)	"	2,241	2,455	2,023	2,426	2,795	3,246	3,360	3,457
무역수지	백만 달러	-8,800	-7,000	1,500	1,200	200	-1,000	-600	
경상수지	"	-1,600	-4,700	-700	500	-800	-2,800	-700	21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1.33	1.33	1.11	1.11	1.13	1.22	1.13	1.1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4,736	5,038	4,549	4,772	6,496	5,780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5,334	5,218	4,650	5,000	5,486	5,223	N/A	

자료 : 벨기에 통계청, Economist Country Report(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 2019년 5월 총선 이후 5개월째 연정구성 지연,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 브렉시트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 지속
- 고용안정 및 소비증가, 높은 정부 부채에 따른 재정정책 제약 등 호조·부진 요인 혼재로 경제성장 다소 둔화 전망
- 화학, 의약 등 주요 산업에 대한 R&D 투자 지속, 환경규제 대비 등 신산업육성 노력

가. 대내외 정치·통상·환경 불확실성 지속

2019년 5월 총선 후 연정구성 지연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 2019년 5월 연방정부, 지방정부 총선 이후 연정이 합의되어야 하나, 5개월째 협상에 진전이 없어 연합정부가 구성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 지난 2014년 총선 후 국내 연정 구성까지 9개월가량 소요, 2010년 총선에는 18개월이나 소요되어 무정부 상태 지속으로 국내 정치 및 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바 있음
- 정부 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거나,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되나*, 정책 결정지연, 정부 예산편성지연에 따른 정부지출 감소 등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
 - * IHS Markit 2019년 7월

브렉시트, 신규 EU 의회 구성 등의 통상 환경 변화

-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로존 내 교역 지연 및 수출입 감소 예상, 역내 교역이 전체 교역 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벨기에 경제에 부수적 피해 예상
- 지난 5월 EU 의회 선거에 따라 신규 의회 및 집행위원장 출범으로 환경, 세제, 이민, 노동 등 각 이슈와 관련한 정책 변화 예상

나. 호조·부진 요인 혼재로 경제성장 다소 둔화 전망

세금 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촉진

- 단계적 법인세 인하추진으로 인한 기업투자 확대
 - 벨기에의 법인세는 34%로 EU 평균 22% 및 유럽 내 주요 국가*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지난 2016년 발표된 법인세 인하계획에 따라 2019년 34%에서 29%로 인하될 예정이며,

2020년까지 25% 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25%에서 20%까지 인하될 예정임

* 유럽 주요국 법인세 : 네덜란드 25%, 영국 20%, 스페인 25%, 독일 29.7% 스위스 18%

○ 고용비용 감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확대

- 근로세 감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감소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실업률 개선에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적 효과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

일자리 확대와 가처분 소득증가로 안정적 소비 기대

○ 실업률 감소, 고용 시장 안정화

- 기업투자확대 및 고용비용 감소에 따른 일자리 창출 확대의 결과, 2019년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에도 5.7% 수준으로 고용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예정

○ 고용개선, 소득세 인하로 소비 시장 안정화

- 고용안정과 실질임금의 상승, 소득세 감축에 따른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민간소비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정부 부채 및 재정적자 지속으로 재정정책 제약

○ 2018년 벨기에 정부 부채 규모는 GDP의 101.4% 수준으로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EU 회원국 평균 86.7% 대비 높은 수준임

* EU Commission, Country report Belgium 2019

○ 2018년 재정 적자는 약간 감소해 GDP의 0.7%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이에 따른 2019~2023년 세입 감소로 인해 적자가 다시 확대 될 것으로 예상

다. 화학·의약 등 주요 산업 R&D 투자 지속

벨기에 최대 산업

○ (화학 산업) 벨기에 석유화학 클러스터에는 전 세계 글로벌 화학 기업의 3/4가 위치해있으며, 720개 이상의 화학 기업이 진출해 30만 명이 관련 산업에 종사.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 총 매출액은 650억 유로로, 국민 1인당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

* 자료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벨기에 화학협회(essensia)

○ (의약 산업) 벨기에 국적의 제약기업인 Galapagos NV, Janssen Pharmaceutica, UCB을 포함, 전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중 29개사가 벨기에에 진출, 유럽 내 바이오테크 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 2018년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액은 430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

화학·의약 분야 R&D 투자지속, 인수합병, 투자 등 협력기회 다대

- 화학과 제약은 국가 전체 R&D 투자액 및 민간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벨기에 최대 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 및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이 진행 중
 - * 민간투자액의 40%, 정부 연구개발비의 43%가 제약 분야에 투입
- 제약 분야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거나 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현지기업들에 대한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의 인수합병 및 투자, MOU가 활발히 진행 중
 - * 자료 : 벨기에 제약협회(Pharma.be)

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산업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EU 재생에너지 지침(EU RED)

-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한 EU 재생에너지 지침
 - EU 차원에서 공동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마련되었으며, 2018년 더 높은 목표로 개정
 - EU RED의 개정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3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 각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 상황에 맞는 실행계획을 세워 재생 에너지 보급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함

벨기에 정부의 에너지, 친환경 정책

- (에너지 2050)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실행방안을 수립, 2025년 탈원전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2030년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예정
- (차량 배기가스 배출규제강화)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202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2030년 이후 50%까지 점유율을 증대시킬 계획
- (플라스틱 사용 규제) 201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규제 중이며, 2021년 이후 빨대, 1회용 식기, 식품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2025년까지 플라스틱 병 90% 이상 분리수거 및 식품포장재 25% 사용 감축을 목표로 함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 (정치) 2019년 5월 총선 이후 5개월째 연정구성 지연, 신정부 구성 이후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장기간 소요 예상
- (경제) 소비증가, 투자 감소 등 호조·부진 요인 혼재로 경제성장 다소 둔화 전망
- (산업) 화학, 제약, 물류 등 주요 핵심 산업 성장지속
- (정책) 법인세감면을 통한 기업투자유도,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추진

가. 정치 환경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며, 강력한 권한을 지닌 지방정부로 구성된 연방 국가

- 입헌국주국으로 국가원수인 국왕은 국가의 상징적 대표이자 국정 중재자, 군최고통수권자이고, 실질적 행정권은 내각이 행사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임
- 언어와 문화, 경제력이 상이한 3개의 지방정부(브뤼셀, 플란더스, 왈로니아)가 각각 대등한 자격으로 독립된 정부와 의회를 갖추고, 중앙정부와 더불어 연방 국가를 구성
- 연방정부는 외교, 국방, 사회보장, 통화, 세제, 안보 및 치안, 사법 분야를 총괄하며,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지역 외교를 비롯하여 고용, 토지관리, 산업육성정책, 공공사업 총괄 등 지역 전반과 관련하여 강력한 권한을 지님
- 네덜란드어권인 플란더스(북부)와 프랑스어권인 왈로니아(남부) 간 언어,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플란더스 지역의 우세한 경제적 격차로 인하여 자치권 확대 요구 등 지역 간 갈등지속

2019년 5월 총선 이후 연정구성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 2019년 5월 연방정부, 지방정부 총선 결과
 - 지난 총선에서 플란더스 지역에서는 우파(N-VA) 및 극우파(Vlaams Belang)정당이 우세하고, 왈로니아·브뤼셀 지역에서는 좌파성향 환경정당(Ecolo) 및 좌파(PS), 중도보수(MR) 정당의 득표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원 의석 150석 중 Vlaams Belang 28석, N-VA는 25석, PS 20석, MR 14석 등을 차지

- 연방 정부 구성은 과반수의 의석을 지닌 연립여당을 구성해야 가능하나 각 지역별 우세한 정당 성향의 차이로 5개월째 연정협상에 진전이 없어 연합정부가 구성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전망

- 좌파나 우파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않고, 지지율이 고루 분포된 상황으로 중도성향 정당을 중심으로 연정이 구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정부구성이 장기간 지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거나, 큰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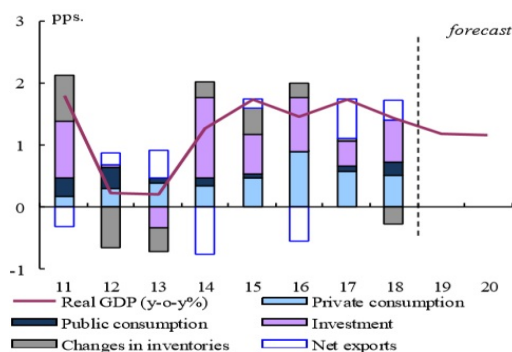
* IHS Markit 2019년 7월

나. 경제 환경

경제성장률 전망

- 벨기에의 2019년 GDP 성장률은 2018년 1.4% 대비 다소 하락한 1.2%로 전망되며, 지속적인 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 무역 둔화로 인한 순 수출 감소로 향후 3년간 1.1~1.3%대의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이는 지난 3년간(2016~2018년) 유로존 평균 경제성장률 2.3% 대비 낮은 수준이며, 같은 기간 벨기에의 평균 성장률인 1.6%도 밑도는 수준임

벨기에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 유럽통계청(Eurostat)

주요 경제지표별 현황 및 전망

○ 소비자물가지수

- 2018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2.3%로 높은 화석연료 가격, 에너지(전기)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2019년과 2020년, 임금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의 이윤 감소, 일부 산업의 경쟁력 약화는 근원물가지수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지수는 1.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벨기에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격차는 2019년 0.3pps로 감소하고, 2020년에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

*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 :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계절적, 일시적 요인으로 변동하는 가격을 제외한 물가지수

○ 투자

- EU의 중심에 위치하여 자금 조달이 유리하며, 양호한 수익성을 갖춘 덕에 2018년 민간투자의 증가는 벨기에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2019년 이후 경제 심리 악화로 투자 성장률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경우 2018년 순 유입액은 399억 달러로, 주요 투자지는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영국이며, 산업별로는 판매와 마케팅 등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높음
- 2019년 3월 유럽연합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제한하는 규정(EU No. 2019/452)을 채택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적용예정으로 2020~2023년 투자 유입액은 연평균 120억 달러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

○ 대외교역

- 세계무역기구(WTO)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벨기에의 수출 규모는 세계 11위(전체 수출 규모의 2.4%), 수입은 14위(전체 수출 규모의 2.3%)로, 재화의 수출입 규모가 전체 GDP의 170%이상을 차지하여 국가경제의 대외교역 의존도가 높음
- 2018년 벨기에의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26.6% 감소한 140억 유로로, 재화 거래 적자와 서비스 부문에서의 흑자를 기록
- 세계 무역 경기 둔화와 생산 임금 비용 상승의 압력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비용 절감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역수지는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자료 : 이코노미스트 2019년 8월 1일 발표

○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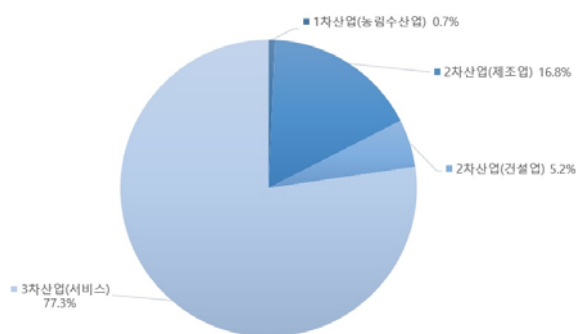
- 일자리 창출의 증가로 실업률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2020년 이후 5.7%로 다소 안정적으로 유지될 예정

다. 산업 환경

벨기에 산업 구조

- 2017년 기준 벨기에 산업별 GDP 비중은 서비스업(77%), 제조업(16%), 건설업(5%), 농림수산업(0.7%) 순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달
- 서비스 산업의 주요 분야로는 도소매(무역), 운송, 식품 가공, 용역서비스 등이 있으며, 최근 R&D를 포함한 정보 통신, 기술관련 서비스 산업도 발달 중

2017년 벨기에의 산업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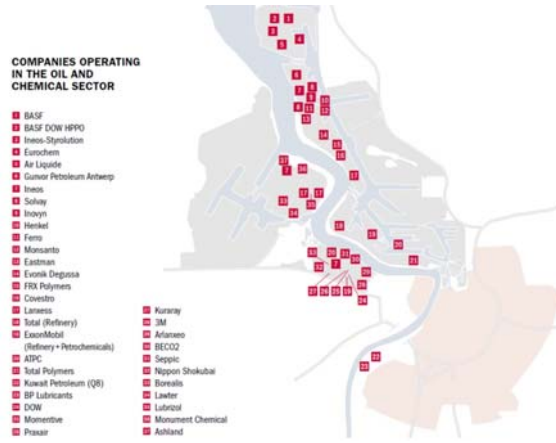


자료 : 벨기에 중앙은행

주요 산업 현황

- 화학 산업
 - 2차 세계대전 이후 벨기에 안트워프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해 온 석유화학 클러스터에는 전 세계 글로벌 화학 기업의 3/4가 위치해있으며, 720개 이상의 화학 기업이 진출해 3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 자료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벨기에 화학협회(essensia)
 -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 총 매출액은 650억 유로로, 국민 1인당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 생산량의 80%가 수출되며, 주요 수출국은 독일로 수출량의 40%를 차지
 - * 자료 : 유럽 화학 포럼(CEFIC)

안트워프 항구에 위치한 석유화학 기업



자료 : 안트워프 항만청

- EU 내 환경 관련 규제와 인식이 강화되면서 화학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순환 경제로의 이행이 강조되고, 신소재, 신물질 개발이 중요하며, 이에, 정부차원의 산학협력, 투자유치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 R&D 투자액은 45억 유로로 전체 R&D 투자액의 60%를 차지
- 한국과 벨기에의 상위 10대 수출입 품목으로는 합성수지, 기타 정밀화학 원료 및 제품, 기타 석유화학제품 등으로 양국 전체교역의 25%를 차지. 벨기에의 주요 화학기업인 Solvay, Umicore가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특히, Umicore는 배터리 원료가 되는 양극재 분야의 세계 선두주자로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기술을 갖춘 한국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기대 됨

○ 바이오 의약 산업

- 화학과 더불어 바이오 의약 산업은 벨기에의 핵심 산업으로, 벨기에는 유럽 내 바이오테크 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하고 있는 제약강국
- 벨기에 국적의 제약기업인 Galapagos NV, Janssen Pharmaceutica, UCB을 포함, 전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중 29개사가 벨기에에 진출해 있음
- 2018년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액은 430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며, 약 32,0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음
- 벨기에는 글로벌 신약후보 물질의 5%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임상실험 수 유럽 내 1위, 전 세계 2위 국가. 암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 후보물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물질을 개발 중이거나, 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현지기업들에 대한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의 인수합병 및 투자, MOU가 활발히 진행 중

* 자료 : 벨기에 제약협회(Pharma.be)

- 벨기에는 2018년, 2억 3천 1백만 달러의 의약품을 한국에 수출하였으며, 수입액은 4백 7십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0% 급증. 한국기업은 벨기에의 견고한 바이오 의약 산업의 인프라를 이용한 위탁 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실험을 통한 유럽 시장 진출 모색 가능

○ 물류

- 유럽 구매력의 60% 이상이 위치하며, 고부가 가치의 제조업이 발달한 블루바나나의 중심에 위치한 벨기에는 예부터 ‘유럽의 관문’으로 불리며, 전략적 위치를 적극 활용한 물류 산업이 발달하며, 벨기에의 안트워프 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유럽 2위, 세계 13위이며, 세계 최대의 RO/RO항으로 인정받는 제브뤼헤(Zeebrugge)항은 2018년 유럽 항구 중 자동차 수입 물동량 1위를 차지

* RO/RO(Roll-on/roll-off):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그대로 싣고 내리는 방식. 주로, 자동차 완제품 선적/하역 시 사용

유럽의 주요항구로부터 주요 도시까지의 거리

(단위 : km)

TO	ANTWERP	HAMBURG	LE HAVRE	ROTTERDAM
① Duisburg	179	378	615	223
Cologne	222	413	576	282
Ludwigshafen	424	570	729	502
Frankfurt	413	489	771	475
Munich	780	769	1008	842
② Valenciennes	168	687	297	274
Lille	132	670	286	248
Paris	362	902	196	455
Strasbourg	491	701	683	593
③ NL Venlo	151	409	544	191
Geleen	128	468	501	212
Amsterdam	160	468	604	77
④ CH Basel	623	811	693	725

자료 : 안트워프 항만청

- 주벨기에 미국 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 외에도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벨기에의 다국어 능력을 물류센터 선정의 강점으로 평가

* 2018년 취리히 연방공대(ETH Zurich)가 발표한 KOF Globalisation Index에서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국가로 선정

- 2018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물류성과지수(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에서 벨기에는 독일, 스웨덴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하였으며, 나이키, 캐터필러, 아트라스코프, 코카콜라, 다우케미칼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벨기에에서 유럽물류센터(EDC, European Distribution Center)를 운영 중

- INC벨기에는 2017년 작성한 산업보고서에서 전통적인 물류 산업은 시장 환경 및 비즈니스 모델, 기술의 영향 등 새로운 변화에 직면, 이에 따라 벨기에의 물류 산업이 3D프린터, 드론, 정보통신과 같은 기술발달을 이용하고, 이커머스와 같은 신규 산업 구조에 대응할 구조적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는 벨기에 리에주에 4번째 DC(Distribution Center)설립을 확정. 해당 창고는 무인자동화창고로 운영 예정

라. 정책·규제 환경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

- 샤를 미셸 총리 집권 이후, 벨기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공공재원의 통합·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여 추진
 - ‘Tax shift’를 통해 법인세의 단계적 인하, 근로세 인하를 추진하고, 사회복지 혜택 수혜 기준 강화, 정년퇴직 연령 상향을 통한 노동 인력 증대, 임금 체계 개편 등 노동비용 경감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 새 연방정부 출범은 2019년 11월 이전에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제정책 및 정부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이 연내에 발표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임
- 2019년 기업법 개정을 통한 기업 설립 절차 간소화
 - 기업 설립에 필요한 법적 서류 종류가 17개에서 4개로 대폭 간소화되고, 최저자본금 규정이 폐지되는 등 신속하고, 편리한 기업설립이 가능해짐
- R&D 및 혁신 분야 집중 지원
 - 벨기에의 R&D에 투자는 GDP의 약 2.6%로 EU 회원국 중 6위에 해당, 지속적으로 R&D 지출 비중을 증가시켜왔으며,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최대 80% 수준의 법인세 감면, 외국인 연구 인력의 소득세 완화 등 R&D 장려를 위해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음

EU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에너지·환경정책

- 에너지 정책 - 에너지 2050
 -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실행방안을 수립
 - 2025년 탈원전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2030년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예정
- 차량 배기가스 배출규제 강화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202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2030년 이후 50%까지 점유율을 증대시킬 계획

○ 플라스틱 사용 규제

- 2018년부터 비닐봉투 사용 규제 중이며, 2021년 이후 빨대, 1회용 식기, 식품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됨
- 2025년까지 플라스틱병 90% 이상 분리수거 및 식품포장재 25% 사용 감축을 목표로 함

통상·투자 정책

- 벨기에의 통상·투자 정책은 지방정부가 3개의 지방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는 해외 투자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 각 지방정부별 상이한 정책을 시행 중이므로 홈페이지 안내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 필수

각 지방정부 투자 관할 기관 홈페이지

플란더스 투자무역청 FIT	https://www.flandersinvestmentandtrade.com/invest/en
왈로니아 투자청 AWEX	http://en.investinwallonia.be/home?lng=en
브뤼셀 투자청 hub brussels	http://invest-export.brussels/en/home

○ EU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규정(EU No. 2019/452)

- 2019년 3월 유럽연합은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 기술 보호를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규정을 채택, 2020년 10월부터 적용예정
- 보호대상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시 투자영향평가, 투자 대상기업 심사 등의 스크리닝을 거쳐야 함

2 시장 분석

- 유럽연합과 나토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주요 정책 결정지
-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통적으로 물류와 중계무역, 가공 산업이 발달
-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
- EU 역내 주요 국가와의 접근성, 우수한 물류 인프라 활용 EU 시장 진출관문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유럽의 정치중심지

- 유럽연합(EU)과 나토(NATO)본부가 위치한 벨기에는 유럽의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럽의 수도'라 불림
- 각 산업 및 제품에 대한 법규와 인증 체계가 결정되는 곳으로, 한국기업이 유럽 진출 시 새로 제정되거나, 추가되는 규정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EU의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시장

-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과 같은 유럽 주요 국가 중심에 위치하여 유사한 문화와 언어권을 공유하는 곳으로 우수인력, 물류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유럽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의 역할 수행
- 협소한 내수시장규모와 부존자원 부족에도 불구하고, 화학,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 해당 분야의 수출입, 투자 등 산업협력 기회 다대

나. 교역

세계 11위 수출국이자 14위 수입국

- 2018년 벨기에 수출 규모는 4,667억 달러, 수입 규모는 4,5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8.4%, 10% 증가

벨기에 연도별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증감률
수 출	398,253	430,702	466,712	+8.36
수 입	379,408	409,056	450,062	+10.02
수 지	18,845	21,646	16,650	-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8일)

EU 역내 교역 중심의 수출입 구조

- (수출) 주요 수출국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순으로 상위 4개 수출국 모두 EU 역내 국가로 이들과의 교역비중이 전체 수출의 52.4%를 차지, 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량 중 0.4%, 수출국 중 33위 수준

벨기에 상위 10대 국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17년	2018년	증감률	점유율
1	독일	71,960.293	82,805.026	15.07	17.74
2	프랑스	64,097.398	67,413.953	5.17	14.44
3	네덜란드	51,840.377	56,958.354	9.87	12.20
4	영국	36,239.963	37,185.978	2.61	7.97
5	미국	20,986.218	24,314.280	15.86	5.21
6	이탈리아	21,065.244	23,846.869	13.20	5.11
7	스페인	11,858.837	13,116.309	10.60	2.81
8	폴란드	9,202.971	10,009.853	8.77	2.15
9	인도	8,985.494	9,375.374	4.34	2.01
10	중국	9,113.572	8,260.186	-9.36	1.77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8일)

- (수입)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전체의 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은 미국이 6.9%, 중국이 4.7%,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의 0.6% 수준으로, 수입국 중 27위에 해당

벨기에 상위 10대 국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국명	2017년	2018년	증감률	점유율
1	네덜란드	70,413.963	80,550.034	14.39	17.90
2	독일	57,162.805	58,496.522	2.33	13.00
3	프랑스	38,920.526	42,258.900	8.58	9.39
4	미국	28,840.230	30,951.169	7.32	6.88
5	아일랜드	16,731.399	23,311.043	39.33	5.18
6	영국	19,713.892	21,065.267	6.85	4.68
7	중국	17,121.961	17,863.115	4.33	3.97
8	이탈리아	14,661.341	15,353.116	4.72	3.41
9	러시아	10,477.980	11,737.816	12.02	2.61
10	일본	9,929.866	10,959.372	10.37	2.44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8일)

주요 수출입 품목

-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의약품, 화학, 플라스틱소재, 기계류 등

2018년 벨기에 상위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출규모	증감률	점유율
1	87	자동차	51,862.838	4.95	11.11
2	30	의약품	47,537.373	10.39	10.19
3	27	광물성 연료	43,920.428	22.06	9.41
4	29	유기화합물	37,706.828	30.32	8.08
5	39	플라스틱	33,463.576	13.14	7.17
6	84	기계	33,072.967	8.30	7.09
7	72	철강	19,799.814	14.24	4.24
8	71	귀금속	18,773.914	5.74	4.02
9	85	전기기기	15,017.694	2.87	3.22
10	90	광학	13,515.437	-7.72	2.90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8일)

-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 자동차, 의약품, 유기화합물, 기계 등

2018년 벨기에 상위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규모	증감률	점유율
1	27	광물성 연료	62,976.436	30.63	13.99
2	87	자동차	56,531.842	5.65	12.56
3	30	의약품	40,588.054	16.14	9.02
4	29	유기화합물	37,128.402	20.45	8.25
5	84	기계	34,637.571	4.08	7.70
6	39	플라스틱	19,842.403	5.25	4.41
7	85	전기기기	18,680.170	4.23	4.15
8	71	귀금속	17,800.485	17.91	3.96
9	72	철강	14,953.443	16.02	3.32
10	90	'광학	12,793.342	-0.06	2.84

자료 : Global Trade Atlas(2019년 10월 8일)

주요 경쟁국과의 수출입 현황

- 2018년 벨기에의 수출 대상국으로 한국은 33위, 중국 10위, 일본 22위를 차지
 - (중국) 벨기에의 대(對)중국 주요 수출품은 의약품이 전체 수출 중 15.6%로 가장 높고, 기계류(10.5%), 플라스틱(8.7%), 자동차(7.8%) 등이 주로 수출됨

- (일본) 벨기에의 대(對)일본 수출품은 의약품이 29.1%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14.8%), 안경 및 렌즈(8.9%), 유기화합물(6.3%) 등이 주로 수출됨
- 2018년 벨기에의 수입 대상국으로 한국은 27위, 중국 7위, 일본 10위를 차지
 - (중국) 벨기에의 대(對)중국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가 11.3%로 가장 많았고, 전기기기류(11.2%), 신발(8.1%), 유기화합물(6.4%) 등이 주로 수입 됨
 - (일본) 벨기에의 대(對)일본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가 51.9%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계류(16.9%), 전기기기(7.7%) 및 유기화합물(5.4%) 등이 주로 수입 됨

수입규제 및 비관세 장벽

- EU 회원국으로 EU의 통상규제를 따르며, 벨기에 별도의 비관세 장벽은 없음
- EU 관내 수입품목에 대한 규제 및 비관세 장벽으로는, 철강 세이프가드, 플라스틱 규제, 화학물질 사전등록제도인 REACH,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규제 등이 있음

다. 투자진출

외국인 투자진출 동향

- 2018년 벨기에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641억 달러로, 전년도 395억 달러에서 대폭 상승, 이를 통해 7,363개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파악, 2020~2023년 전망은 연평균 140억 유로임
* Economist, Ernst&Young
- 유럽 전체 외국인 투자유입은 감소세임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의 외국인 투자유입은 상승하여 유럽 FDI 순위가 2017년 8위에서 2018년 5위로 상승
- 주요 외국인 투자 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가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운송·물류(35건), 농·식품(26건), 디지털 분야(23건) 등
- 세계은행의 기업 운영의 편리성(Ease of Doing Business)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벨기에에는 190개 조사대상 국가들 중 45위를 차지해 비교적 기업하기 좋은 국가로 평가되며, 특히 풍부한 물류·유통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있어, 국가 간 교역(Trading across Borders)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함
※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어 5위

경쟁국 투자진출 동향

-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용효과 측면에서는 독일의 투자로 인해 신규 창출된 일자리가 1,662개로 가장 많았음

벨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주요국

순위	국가명	투자 진행 건수
1	미국	51
2	프랑스	44
3	네덜란드	32
4	영국	25
5	독일	23
6	중국	16
7	일본	15

자료 : EY(2019년)

투자 관련 규제

- EU 외국인 투자 제한법 시행
 -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EU 전략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자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마련
 -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시 투자영향평가, 투자 대상 기업 심사 등의 검토 후, 필요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가 2019년 발표, 2020년 10월 시행예정

최근 우리기업 투자진출 사례

- 2019년 6월 SK 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첫 번째로 벨기에 석유화학 단지에 PDH 플랜트 건설 수주 계약을 맺고, 벨기에 시장에 진출함
 - * PDH 플랜트는 석유화학 제품의 기초 원료인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공장임
-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안트워프 석유화학단지 내 공장 설립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주 규모는 1,420만 달러임

가. 교역

 교역 현황

- 벨기에는 한국의 29위 무역대상국 및 유럽 지역의 10위 교역국
 - 2019년 1~7월 한국의 대(對)벨기에 수출은 17.1억 달러, 수입은 7.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9%, 19% 하락

한-벨기에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 USD 백만,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1~7월)
수 출	2,023(-17.6)	2,426(+19.9)	2,795(+15.2)	3,246(+16.1)	1,715(-15.9)
수 입	1,431(-21.8)	1,073(-25.0)	1,273(18.7)	1,496(+17.5)	761(-19)
수 지	592(-4.5)	1,353(+128.5)	1,522(+12.5)	1,749(+14.9)	954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년 8월 6일)/괄호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목은 건설 중장비, 합성수지, 승용차, 아연도강판 등이며, 수입품목은 기타 정밀화학 원료, 의약품, 기타 정밀화학 제품 등임

대(對)벨기에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품목명	2019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건설 중장비	688	13.8	건설 중장비	499	18.6
2	합성수지	314	6.8	승용차	197	18.7
3	승용차	288	-1.0	합성수지	173	-5.6
4	아연도강판	273	34.9	아연도강판	100	-40.1
5	윤활유	144	23.7	냉연강판	64	-31.5
6	냉연강판	143	8.9	윤활유	63	-35.4
7	기타 정밀화학 원료	107	42.7	기타 정밀화학 원료	59	-15.0
8	기타 석유화학 제품	86	-11.3	기타 석유화학 제품	44	-23.5
9	자동차 부품	75	12.4	자동차 부품	44	-7.2
10	의약품	12	-38.4	의약품	30	345.2
	계	2130	-	계	1273	-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2019년 8월 6일)

대(對)벨기에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품목명	2018년		품목명	2019년 (1~7월)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	기타 정밀화학 원료	238	72.6	의약품	92	10.1
2	의약품	138	21.7	기타 정밀화학 원료	38	-76.7
3	기타 정밀화학 제품	101	-2.9	기타 정밀화학 제품	36	-59.9
4	합성수지	83	18.7	승용차	35	-20.3
5	기타 석유화학 제품	64	37.8	펌프	30	33.3
6	승용차	57	-31.4	합성수지	30	-40.6
7	기초유분	53	136.2	기초유분	27	23.9
8	펌프	39	-22.3	주류	25	9.4
9	주류	37	41.7	중후판	24	66.7
10	중후판	23	-15.6	기타 석유화학 제품	22	-40.6
	계	833		계	359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기준)(2019년 8월 6일)



우리기업의 수출 성공 사례

수출 성공 사례 : 체외진단시약 S사(벨기에 수출)

- 벨기에 체외진단시약 전문 유통기업 A사와 독점계약 체결을 통해 벨기에 시장 성공적 진출
- 첫 해도 약 28만 USD 상당의 성약 이후, 현재 연간 100만 USD 이상의 성약액 달성하며, 안정적으로 시장 확대
- **제품의 비교우위** :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체외진단시약 시장 선도 및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제품개발 협업

HS코드(6단위)	세부품목	대한(對韓) 수입액 (2018년 US백만)	대한(對韓) 수입증가율 (2018년)
382200	체외진단시약	1.28	-23.51%

- 한 번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멀티플렉스 유전자 증폭시약과 분석 소프트웨어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
- 분자진단시약 관련 다양한 제품군과 해당 시약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 및 생산하여 고객사에 A-Z서비스 공급 가능
- 독일, 미국, 캐나다, 아랍에미레이트, 멕시코, 이태리, 브라질 등 대륙별 해외 지사를 두어 탄탄한 해외영업망 구축

• 마케팅 Tool

필수 인증	CE
성약 소요기간	12개월(유망 잠재바이어 4개사 미팅 및 최종기업 선정) 2015년 9월(지사화 사업 가입)~2016년 8월(최종 선정기업과 첫 수출성약)
바이어 발굴경로	■ Telemarketing □ 전시회 □ Sales Rep. □ PR agent ■ 기타(온라인서치)
바이어 D/B	· Kompass, TrendTop
유망 전시회	· Medica/전체 의약 및 의료 산업 관련 유럽 내 최대 전시회 (매해 11월/1년 주기)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유의사항** : (바이어사와의 협업 형태 중요) 국내사 제품은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에 기 진출한 만큼, 그 시장성은 충분히 입증된 상태. 다만, 국내사 측에서 국가별 파트너 업체를 선정 시 비중을 두어 고려하는 점은 파트너사가 국내사 제품에만 집중하여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지의 여부. 실제 벨기에 유망 파트너 4개사와 미팅과 conference call을 진행하면서 후보 업체들이 국내사 제품에만 올인하여 사업을 진행할 여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음

나. 투자

한·벨기에 투자교류 현황

- (투자유치) 화학, 의약품, 특수소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진출, 주요 기업으로는 솔베이(화학), 유미코어(소재), UOB(의약), 겐트대학교(교육) 등이 있음
- (투자진출) 최근 5년간 60건, 7억 3,7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2018년 투자 건수와 금액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 ICT,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가 평년보다 많이 이뤄짐에 기인

(단위 : 건수, 백만 달러)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누계 (5년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對)한국 투자유치	5	78.8	4	67.2	5	92.1	10	58.4	8	177.8	32	474
대(對)벨기에 투자진출	8	343	14	24	6	56	7	47	25	267	60	737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INSC(외국인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신고금액 기준)(2019년 8월)

진출기업 현황

- 자동차, 건설기계, 물류 분야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9개사가 진출, EU 본부 소재지, 유럽의 지리적 중심지 특성 활용, 유럽 총괄 법인 또는 판매 업무 수행

기업명	진출 목적
두산산업차량	지게차(판매)
현대건설기계	건설 중장비, 지게차 및 관련부품 판매
현대자동차	대(對)EU 협력 및 대응
현대모비스	자동차 보수용 부품 유통
기아자동차	자동차 판매
삼성전자	대(對)EU 협력 및 대응, 연구
길리안(롯데제과)	초콜릿 제조, 유통
아시아나항공	항공운송(화물)
세종해운	해상 물류
NXMH(넥슨)	현지 투자

우리기업 투자진출 사례

- 2019년 한국 금융투자자의 벨기에 부동산 투자진출
 - 한국투자증권은 5월 초 벨기에 브뤼셀 사무실 건물인 The Toison d'Or 빌딩을 약 2,000억 원 상당에 인수함
 - 메리츠증권은 AIP 운용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9월 현재 벨기에 브뤼셀의 파이낸스 타워

매입을 위한 단독협상을 추진 중. 파이낸스 타워는 브뤼셀 중심가에 위치한 36층 규모의 사무실 건물로 1.7조 원 수준으로 평가됨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019년 3월 벨기에 국왕 국빈 방한

- 2019년 3월 벨기에 필립국왕은 80여 명의 기업관계자, 5개 대학 총장들로 이루어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국빈 방한
- 정상회담 시 양국 간 우호 증진, 실질협력 강화, 한반도 정세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 하였고, 앞으로 양국 간 5G,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등 다방면의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정상회담 중 각국의 장관들은 양국의 수출입 증대, 중견·중소기업 활성화, 산학 협력분야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양국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

기존 산업 협력강화 및 신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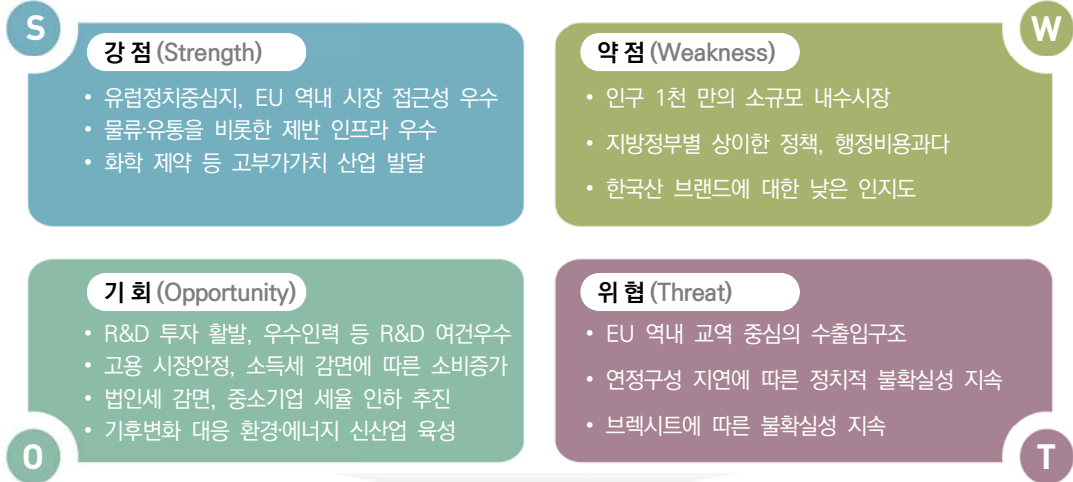
- 화학, 제약 등 기존 산업 협력강화
 - － 벨기에 최대 산업으로 수출입, 투자유치 등에서 더 나아가 공동 R&D 추진 등 협력강화
- ICT, 반도체 부품소재개발 등 신규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추진
 - －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연구센터 인프라를 활용, 반도체 부품소재 개발 및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산업협력 추진

Ⅲ. 진출전략

- 브렉시트 이후 영국 수입 대체 시장 선점
- 화학, 제약 등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활용 투자진출 및 산업협력 강화
- 소득세감면, 실업률 감소 등 소비안정세를 기회로 소비재 시장 공략
- 역내 주요 국가와의 접근성, 우수한 물류 인프라 활용 EU 진출 거점 활용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벨기에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 EU 시장 진출 교두보, 테스트마켓으로 활용 • 화학, 제약 분야 중점 투자유치 및 경제협력 강화	중점 산업 투자유치 산업 간 협력추진
ST 전략 (강점 활용)	• 역내 최고 단일 시장 타깃 공략 • R&D 투자, 보조금 지원 정책 및 우수연구인력 등 인프라 활용, 부품소재 개발 협력 추진	반도체 부품소재 개발협력
WO 전략 (기회 포착)	• 기후변화 대응 산업 시장 선점 • 소득세감면, 소비안정세를 기회로 소비재 시장 공략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브랜드 인지도 제고
WT 전략 (위협 대응)	• 브렉시트 이후 영국수입 대체 시장 선점	영국수입대체 시장 선점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협력 및 투자유치 강화
기후변화 대응 환경·에너지 산업 신시장 선점
소비여건 호조, 브렉시트를 기회로 소비재 시장 진출 모색

2-1.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협력강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화학·제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 중
 - *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 R&D 투자액은 45억 유로로 전체 R&D 투자액의 60%를 차지
- 기존 주력 산업에 대한 산업 구조 혁신과 신소재, 신물질 개발수요로 협력기회 다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벨기에 화학·제약 산업의 브랜드가치 제고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활동
 - 2019년 7월, 플레미쉬 정부와 유럽 연합 무역대표부는 벨기에 5대 주요 경제부문을 선정하고, 관련 기업들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투자유치 증대를 위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함
 - * 주 : 생명공학(Life Sciences&Health), 식품(Food), 솔루션 중심 공학 기술(Solution Driven Engineering& Technology), 스마트 물류 및 지속 가능한 자원(Smart Logistics and Sustainable Resources), 원자재와 화학(Materials&Chemistry)
 - 벨기에 정부는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금 제도를 개편하고, 해외 행사에 참여하여 국가 핵심 산업을 홍보, Patent Cell, Innovation Circle와 같은 산하 기관을 신설하여 지적 재산권 보호와 유망한 스타트업에 지원함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 대응 정책들이 강화되고,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벨기에의 핵심 산업인 화학과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개혁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한국기업들도 국제 산업 추세와 수요에 맞추어 신기술 및 신소재 개발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화학) 생산 공정의 친환경화를 통하여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포집과 탄소 재활용 기술 연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체 연료 개발
 - * 주 : 탄소 포집(CCS): 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재활용(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 (제약) 제약 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개방형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소 제약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선두기업과 기술협력
 - * 주 : 상위 20개의 제약기업이 전체 시장의 63% 점유

2-2. 친환경 제품·신재생에너지 신시장 진출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한 벨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시장 지속 확대 예상,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 유지·보수 사업 기회 다대
-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및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고조에 따라 시장 지속 확대예상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에너지 2050 정책 하에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2025년 탈원전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2030년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예정
 - 플란더스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8년 12%에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하기 위해 21억 유로를 오프쇼어 풍력발전 시설 건립에 투자해 유럽에서 5번째로 큰 풍력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201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규제 중이며, 2021년 이후 빨대, 1회용 식기, 식품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플라스틱 사용규제에 따라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환경친화적 제품 및 바이오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상품들이 시장에 소개되어 주목받음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 에너지 생산·저장 시설의 설비 및 부품, 설비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을 위한 필수 제품으로 벨기에는 2017년 최초 산업용 ESS 설치 후 가정용, 산업용 설치 사례 지속증가
 - 현지 EPC 역할이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 및 협업을 통한 진출전략 설립 필요
- 빨대, 음식포장재료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지 레스토랑 및 패스트푸드 체인 등 1회용 플라스틱 주요 사용처를 중심으로 대체 품목 마케팅 강화

2-3. 5G 기반 소프트웨어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벨기에 ICT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135억 유로이며, 인터넷 보급률 100%
- 5G 네트워크 구축 및 5G 활용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 서비스, 5G 가입자 전용개발 앱 개발계획 수립 등 5G 도입 사전준비 진행 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Digital Economy&Society Index(DESI)에서 벨기에는 EU 28개 회원국 중 9위를 차지, 통합적 디지털 기술, 디지털 공공 서비스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 벨기에 정부는 2015년 'Digital Belgium' 정책을 발표하고, ICT 제반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 5G 상용화를 추진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5G 기반 소프트웨어 및 모바일 콘텐츠
 - － 향후 2년 내 5G 상용화를 대비해 통신업체들은 5G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중
 - － 주요 통신사들은 5G 도입을 위한 장비 및 설치관련 글로벌 기업과 안정적인 파트너십 구축하여 이와 관련 협력 기회 발굴은 쉽지 않아 보이나, 5G 네트워크 사용 및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5G 전용 모바일 앱, 게임 등의 콘텐츠 등에 대한 협력수요는 유효
 - － 5G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벨기에 주요 통신사들과 협력 기회 모색
- AR/VR 장비 및 콘텐츠
 - － 5G 상용화 시 TV 스크린과 핸드폰 화면을 AR/VR 장비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관련 수요증가 예상
 - － AR/VR 장비 및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모색

2-4. 소비여건 개선을 기회로 소비자 시장 진출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실업률 감소, 소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로 내수 소비 안정 전망
- 화장품,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노력을 통한 벨기에 시장공략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친환경, 자연주의에 대한 관심과 선호증가
 - － 화장품, 주방용품, 유아용품 등 소비재 전 분야에서 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 증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화장품
 - － 최근 5년간 벨기에 시장 화장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21억 3,500만 유로를 기록했으며, 2023년 25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 유기농 화장품 및 각종 유해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브랜드들이 시장에 신규 진입해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 － 수입제품의 70% 이상이 유럽 역내 제품으로 한국제품은 품질력 대비 인지도가 낮아 인지도 제고를 위해 SNS 및 현지 언론 활용 등 다방면의 마케팅 노력 필요
 - － 오프라인 구매가 92%를 차지, 대형 화장품 유통체인을 중심으로 백화점 잡화점 등의 유통망 공략을 통한 시장 진입 추진
- 생활용품
 - － 유기농, 친환경 소재의 주방용품 및 침구 등의 생활용품에 대한 관심 증가
 - － 벨기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친환경 자연주의 콘셉트의 제품라인 중심으로 벨기에 시장 진출 모색
 - － 주방용품, 유아용품 대부분은 대형슈퍼마켓과 가정용품 체인점 등 오프라인을 통해 유통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재질 표시 의무 등 EU 규정 준수 필요

벨기에 화장품 바이어 인터뷰

백화점 Galeria Inno(화장품 구매부서 매니저 Beba Lauro)

문1 : Inno 백화점의 화장품 납품 업체 선정 기준을 알려달라

답1 : 성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 백화점의 주요 고객들은 가격을 따지기보다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다. 한국화장품은 아직 벨기에 시장에서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고급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종류의 제품만 생산하는 브랜드는 입점 대상이 아니며, 다양한 제품 라인을 갖고 있는 브랜드를 찾고 있다.

문2 : 한국 화장품이 벨기에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가?

답2 : 기존 유럽 시장에 없는 새로운 콘셉트의 한국 제품들이 많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갖춘 차별화된 제품이라면,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3 : 벨기에 진출을 원하는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 조언을 부탁한다.

답3 : 우선 벨기에 소비자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화장품 소비자들이 어떤化妆품을 원하고, 화장품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해 볼 것을 권한다.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잉하고, 한국기업의 계정을 만들어 벨기에 소비자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 화장품 컨설팅 기업 HMC(창립자 겸 CEO Helen Willems)

문1 : HMC는 어떤 회사인가?

답1 : 우리는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는 중소기업 규모의 화장품 업체들에 적절한 유통 채널을 찾도록 도와주고, 유럽 내 브랜드 이미지 확립을 위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온 여러 중소기업의 화장품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을 도와주고 있다.

문2 : 한국 화장품들의 시장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2 : 일부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유럽보다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고, 유럽 제품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원료들로 제조되거나, 향과 촉감이 기존 유럽 제품들과 달라 매우 시장성이 높다고 본다.

문3 :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게 해줄 조언이 있다면?

답3 : 몇몇 한국 화장품 회사들과 상담해보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강점으로 홍보하는 기업이 있었는데 브랜드 고급화를 원한다면, 다른 유통 채널을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일반적으로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유럽 소비자들이 고급 제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2-5.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수입 대체 시장 선점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벨기에 수출입의 50% 이상은 역내교역, 영국은 벨기에 수출 시장 8%, 수입 시장 5% 점유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과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 대비, 영국 수입품목에 대한 대체 시장 선점
- * 영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 원유(21%), 자동차(19.2%), 기계류(8%), 유기화학물(7%), 의약품(4%), 플라스틱(4%), 전기기기(3.6%), 광학의료정밀기기(3.4%), 화장품(2.9%) 등으로 일부는 한국과의 주요 교역산업과 중첩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브렉시트로 인하여 유로존 내 교역지연 및 수출입 감소 예상, 역내 교역이 전체 교역규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벨기에 경제에 부수적 피해 예상
- 브렉시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EU 집행위의 정책방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혼선이 우려되는 영국과의 주요 교역품목에 대한 수입대체 시장 선점 필요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화학 및 소재 분야
 - 영국 주요 수입품목으로 광물성 연료,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등의 화학 및 소재 분야는 한-벨기에 주요 수출입 품목이자 투자유치 분야

- 이미 한국에 진출한 주요 화학 및 소재 분야 기업과의 협력 확대 및 기존 거래선 확장노력을 통한 영국수입 시장 대체 기회모색
-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의약품 위탁생산, 신약개발 연구협력 등의 기존 협력관계 확대
- 화장품 등 소비재
 - 대형 화장품 유통체인, 슈퍼마켓 등의 유통체인 중심 협력기회 발굴로 화장품 및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 기회 발굴

3 한-벨기에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화학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벨기에는 정부, 학교, 기업, 협회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벨기에 화학협회 및 주요 화학기업에서는 Innovation Fund(2천 8백만 유로)를 조성하고, 스타트업에 일대일 코칭과 더불어 유망 프로젝트 직접투자를 통해 화학 산업의 미래 주역을 양성 중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브렉시트 이후,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벨기에 정부와 관련 기관은 영국과 벨기에 간 수출입 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규정, REACH 등록 및 전환 기간 검토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 중
 - 영국은 벨기에 화학 및 제약 산업 수출입국 순위 5위. 매일 2,300만 유로의 제품이 영국으로 수출 중으로, 연간 50억 유로의 흑자 기록
 - * 자료 : 벨기에 화학협회(essensia)
 - *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1톤 이상 제조 혹은 수입 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절차를 의무화하는 유럽 연합의 화학물질 통합 관리제도
 - 2019년 6월, 유럽연합과 메르코수르(Mercosur) 간 자유무역 협정(FTA) 타결로 화학 산업 전반에 걸쳐 수출 증대 및 투자유치 증가 예상
 - * 메르코수르(Mercosur) : 1995년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 등 남미 4개국이 출범시킨 남미 경제공동체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전문 인력의 부족심화
 -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의 고용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이공계 인력 부족으로 2019년 5월 기준, 관련 산업 내에서만 2,000여 개의 직업이 공석이며, 이 중, 1/4는 경력이 요구되지 않는 신입직
 - * 생산 관리 및 기술지원직, R&D 분야의 경우 학사 이상, 공학기술 분야는 석사이상의 학위 필요
 - 벨기에 네덜란드어권인 플레미쉬 지역에서는 교육직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화학 및 제약 분야 종사자들을 시간제 교사로 투입
 - 2018년 한국은 전 세계 화학제품 수출국 6위의 화학 선진국으로(벨기에는 3위) 규정, 분석 및 연구, 교육 분야에서 한국 청년 및 전문 인력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기술 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
 - * 자료 : World's Top Exports

3-2. 제약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벨기에는 유럽 내 바이오테크 기업 시가총액의 약 23%를 점유
- 제약 산업은 벨기에 제조업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 산업으로, 벨기에 정부는 제약 산업의 혁신 및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 및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물질을 개발 중이거나 기술을 보유한 벨기에 현지기업들에 대한 다국적 대형 제약기업의 인수합병 및 투자, MOU가 활발히 진행 중
 - 벨기에 국적의 제약기업인 Galapagos NV, Janssen Pharmaceutica, UCB을 포함, 전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중 29개사가 벨기에에 진출해 있음
 - 영국계 다국적 제약회사인 GSK의 전 세계 가장 큰 백신 생산 시설이 벨기에 왈로니아 지역 위치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벨기에는 2018년, 2억 3천 1백만 달러의 의약품을 한국에 수출하였으며, 수입액은 4백 7십만 달러로 전년 대비 250% 급증. 한국기업은 벨기에의 견고한 바이오 의약 산업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유럽 시장 진출 모색 가능
 - 벨기에는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의 5%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임상실험 수 유럽 내 1위, 전 세계 2위 국가
 - 위탁 생산 및 개발, 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실험을 벨기에 중소제약 기업과의 협력하여 경쟁력 제고
 - * 2019년 3월, LG화학은 벨기에 제약회사 PDC line pharma와 폐암 항암백신 연구 협력 및 국내 개발과 아시아 판권 계약 체결
 - *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7년 12월 UCB로부터 첫 위탁생산(CMP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계약 수주 이후, 2019년 5월까지 세 번의 위탁생산 계약을 맺음

3-3. 물류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물류시스템의 현대화에 주력하여 유럽의 대표적인 물류 강국으로 성장
- 2018년 벨기에 중앙은행에 따르면, 벨기에 물류·운송 산업의 총매출액은 5백 88억 유로, 총부가가치는 1백 88억 유로로, 이는 국가 GDP의 7.6%에 해당하는 규모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주요 전통 산업 중 하나인 물류 산업의 혁신을 위해 최근, 벨기에 정부는 낙후된 공항, 항구, 운하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물류 인프라 개선에 주력
 - 내륙에 위치한 안트워프 항은 과거 유조선 등 대형선박의 입항에 한계가 있었으나, 얇은 수심을 보완하고자 지속적인 준설작업과 항만시설 현대화를 추진해 2013년 10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인 Mary Maersk(1만 8,400TEU급)와 Evelyn Maersk(1만 5,500TEU급)가 동시에 하역작업에 성공하는 등 대형선박 입항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2016년에는 세계 최대의 갑문인 Berendrecht을 완공(공사비 3억 4,000만 유로)하였으며, 정부와 안트워프 항만청은 2025년까지 총 80억 유로를 투입하여 항만시설을 개발예정
 - * 현재, 안트워프 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보다 큰 1만 3,507ha의 항만구역을 보유
 - 2019년 3월, 브뤼셀 공항 당국은 1억 유로를 투자하여 3년 내 공항 시설 근대화와 바이오의약품 취급시설 건설 예정 발표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안트워프 항은 유럽 1위 항구 로테르담과 같은 북해 연안에 위치하여 지리적 인접성으로 도태될 수 있었으나, 차별화 전략과 지속적인 투자로 유럽 주요 항구로 자리매김
 - 안트워프 항의 이러한 성공전략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위치한 한국의 항구와 물류 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양국 간 전문 지식과 기술 교류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요망
 - * 부산항만공사(BPA)는 2017년 벨기에 아스트리드 공주 방한 시, 벨기에 안트워프 항, 지브뤼헤 항과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수행, 터미널 관리 및 운영 분야의 기술교환, 교역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한 MOU를 체결
 - 유럽 시장 전역에 안정적인 수출을 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경우 벨기에를 유럽 유통거점으로 정하고, 물류비용 감소와 효율성 제고를 꾀할 수 있음

3-4. 반도체 소재개발 협력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세계 최고의 반도체, 나노, 디지털 기술연구 허브인 IMEC 연구 인프라를 활용, 반도체 부품소재개발 협력 추진
 - * 아이멕(IMEC, nteruniversitair Micro-Electronica Centrum VZW) : 아이멕(IMEC) : 벨기에의 나노일렉트로닉스 및 디지털 기술 R&D 허브. 정부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4년 비영리단체로 설립. 2016년 디지털 리서치 센터인 iMinds와 합병하여 글로벌 첨단 연구단지로 자리매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벨기에 린벤의 24,400m²의 대지에 위치한 IMEC 연구단지는 실험실, 12,000m²규모의 2개의 클린룸뿐만 아니라, 초분과 이미징, 렌즈프리 현미경과 같은 이미지센서 및 비전시스템과 같은 고가의 장비들을 갖추고, 97개국에서 온 약 4,000여 명의 연구인력 보유
 - 연구 분야 : 나노일렉트로닉스 및 응용 분야, 사물인터넷, 의료 및 에너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칩 생산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설비와 소재개발의 국산화를 위해 IMEC과의 협력 및 성공전략 벤치마킹 필요
- 한국 정부는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검토 중이며, 벨기에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이 있는 한국형 테스트베드 설립 필요

4

진출 시 유의사항

무역사기	EU의 일반 특혜관세 제도
■ (현황) - 국제기관이 다수 위치한 벨기에의 특징을 이용, 공공 기관 및 단체명을 언급하며 접근 - 한국인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현지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로 된 가짜서류 혹은 관련 없는 서류 제공하며 유인 ■ (대응전략) ☞ 서류제목이나 관련 부서명을 구글에서 검색하여 실존여부 확인 ☞ 바이어측에서 제공하는 정보(특히, 메일주소)가 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 ☞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공유되는 정보를 이용한 접근 사례도 있음으로, 메일로만 교신하지 말고 유선상 연락 등 직접접촉을 통한 재확인 필요	■ (현황) - 임금이 저렴한 제3국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하는 일부 한국 기업의 경우 EU-개도국 간 일반 특혜관세 제도(GSP, Generalised Scheme of Preferences) 혜택을 받으나, - 해당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EU에서 일시적으로 혜택을 철폐 하거나 통관절차를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 ■ (대응전략) ☞ KOTRA 발간자료 및 EU GSP list를 (https://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development/generalised-scheme-of-preferences/)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함
화물 운송 노조 파업	3개로 분리된 언어 권역
■ (현황) - 화물·운송 노조의 대규모 파업이 연 1~2회 정도 일어나고 있어 물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 ■ (대응전략) ☞ 노조 파업은 주로 연휴나 여름휴가 시즌 시작 전에 불시에 발표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한 물류 일정은 현지 뉴스 등을 참고해 사전에 조정이 필요	■ (현황) - 수도 브뤼셀과 왈로니아에서는 프랑스어, 플란더스에서는 네덜란드어, 독일 인접 지역에서는 독일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 현지 기업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대응전략) ☞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나 프랑스어 권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전문 통역을 미리 준비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71190	수입관세율(%)	0%
전기자전거	수입액('18/US\$백만)	19.29	대한수입액('18/US\$백만)	0
	선정사유	2018년 벨기에 자전거 시장은 전년 대비 약 4%가 증가하여 총 50만대가 판매됨 이 중 전기자전거는 약 50%인 약 25만대가 판매되어 전년 대비 14.3%의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임		
	시장동향	자전거 시장의 90% 이상이 전기자전거를 취급하고 있으며, 여성용 모델이 전체 마켓의 65%를 차지함 2018년 전기자전거 평균가격은 전년 대비 1.9% 증가한 2,370유로임		
	경쟁동향	프랑스 Decathlon과 같이 중국산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대형매장의 저가 제품과 벨기에 E-volt, Ahooga, 영국 Brompton 등과 같은 유럽산 고가제품이 강세임		
	진출방안	저가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고품질 국산배터리를 장착하고,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제품으로 유럽브랜드 (고가지만 품질 우선) 선호 그룹 공략		
품목명 2	HS Code	391690	수입관세율(%)	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수입액('18/US\$백만)	61	대한수입액('18/US\$백만)	0.06
	선정사유	내마모성, 내열성, 내충격성 등 강도와 열변형성이 뛰어난 특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산업용 소재로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항공기 및 자동차 부품 소재 등 산업용 및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 소재로도 활용도가 높음		
	경쟁동향	일본과 독일 기업들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서 강세를 보임		
	진출방안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더욱 개발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신소재 개발을 통한 시장 우위 선점 필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재활용 방안 모색하여, 친환경 제품에 민감한 벨기에 및 유럽 시장 공략 필요		
품목명 3	HS Code	850760	수입관세율(%)	0%
에너지 저장장치 ESS (Energy Storage System)	수입액('18/US\$백만)	247	대한수입액('18/US\$백만)	7.8
	선정사유	EU가 산업용, 가정용 목적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및 사용에 집중하는 만큼, 친환경 에너지 저장을 위한 필수 제품인 ESS 품목이 각광받고 있음		
	시장동향	벨기에는 2017년 최초 산업용 ESS 설치 이후, 지속적으로 산업용, 가정용 설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 최대 에너지 기업인 Engie 사가 시장을 선도		
	경쟁동향	ESS는 핵심부품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만큼 국내배터리 기업(LG화학, 삼성SDI 등) 및 일본, 중국 업체가 강세를 보임		
	진출방안	벨기에 및 유럽 내 EPC 역할이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 및 협업을 통해 유럽 진출 전략 설립 필요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품목명 1		
모바일게임	선정사유	벨기에는 2018년 기준 4백만 명 이상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게임 산업에 3백만 불 이상을 지출함 아울러 세계 게임마켓에서 31위를 차지하여 인구대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음
	시장동향	인구의 약 50%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디지털 게임을 하며, 이중 절반은 매일 게임을 즐기 또한 게임 이용자들 중 25%는 하루 1시간 이상 게임에 접속함
	경쟁동향	모바일 게임은 전체 시장의 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여 개 이상의 현지 게임 개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음
	진출방안	벨기에는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영어와 더불어 현지어 작업을 통해 게임의 현지화가 필요
품목명 2		
E-스쿠터 쉐어링서비스	선정사유	벨기에 e-scooter 시장은 서비스 제공업자 및 기기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아직까지 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없어 공유 서비스가 붐을 이루고 있음
	시장동향	현재 브뤼셀에는 5개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약 5천 대의 e-scooter를 이용하여 서비스 제공 중이며, 곧 2개사가 추가되어 이용가능 대수가 7,500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경쟁동향	미국계 기업인 Lime이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Dott, Troty, Hive, Poppy가 활동 중 또한 Uber사의 Jump와 독일 스타트업인 Wind가 조만간 가세할 예정임
	진출방안	브뤼셀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아직 해당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초기 테스트 단계 이므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는 해당 시청 및 서비스 제공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을 고려
품목명 3		
웹툰 콘텐츠	선정사유	전 세계적으로 웹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벨기에도 특히 인근국(프랑스)으로부터 웹툰 서비스 도입에 대한 관심 증가
	시장동향	4G 이동통신 보급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 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 추세
	경쟁동향	한국과 일본 웹툰 등이 유럽 내 진출하였으나, 현재까지는 한국 웹툰이 강세를 보임(프랑스 웹툰 서비스 업체 담당자)
	진출방안	불어, 네덜란드어, 독어 번역 작업 및 현지 시장이 선호하는 웹툰 콘텐츠 개발 및 타겟팅을 통한 현지화 중요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연번	구분	사 업 명	시기/장소
1	투자유치	화학 분야 투자 IR(K-Reach 설명회)	2분기/벨기에 브뤼셀
2	산업협력 투자유치	한-벨기에 제약/바이오 파트너십	3분기/벨기에 브뤼셀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 선거일정 : 대선, 총선 등 주요 선거
- 기타 경제(정치) 주요 일정 : 예) 이란 핵협상 등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EU 의회	2020.3.26 ~ 27	
EU 의회	2020.6.18 ~ 19	



주요 경제·통상 일정

- 법령제정/예산일정 : 외투법, 에너지법 개정 등 법령 개정 및 예산발표
- 무역협정 : FTA, CEPA 등 무역협정 협상시작/완료/체결/발효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2020 CG Code(Corporate Governance Code) 발효	2020.1.1	
2021 EU 및 벨기에 예산안 발표	2020년 가을	



유망 전시회 캘린더

- 행사 : 대형 전시회, 포럼 등

산업	품목	전시회명	일자/장소
자동차	자동차, 트레일러, 오토바이, 캠핑 액세서리 등	벨기에 브뤼셀 자동차 전시회 (Salon Auto)	2020.1.10 ~ 19/브뤼셀
에너지	생산설비, 실리콘, 변압기, 집열기, 난방시스템, 태양열모듈·전지판·전지 등	벨기에 겐트 태양열에너지 전시회 (Inter Solution)	2020.1.15 ~ 16/겐트
기계·부품	펌프, 밸브, 필터, 파이프라인, 고무·플라스틱 엔지니어링	벨기에 안트워프 펌프&밸브 전시회	2020.3.25 ~ 26/안트워프
소비재	수산물, 포장, 식품·음료 등	벨기에 브뤼셀 수산물 박람회 (Seafood Expo Brussels)	2020.4.21 ~ 23/브뤼셀
의료기기	의료기기, 실험실 장비, 치료용품	벨기에 겐트 의료기기 전시회 (Health Care)	2020.4.21 ~ 23/겐트

I. 한-벨기에 상생협력 필요성과 미래비전

가. 벨기에의 협력 잠재력과 주요국 협력 현황

'유럽의 수도'이자 세계 최대 단일 EU 시장 진출 관문 벨기에

- 유럽연합과 나토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정치 중심지
 - * 최근 브렉시트 이슈와 유럽연합 새 집행위출범으로 관심 집중
-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EU 중심에 위치한 전략적 시장
- 화학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글로벌 리더이자, 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정부별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 벨기에의 R&D 투자는 GDP의 약 2.6%로 EU 회원국 중 6위
기업들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최대 80% 수준의 법인세 감면
- 위기를 기회로,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을 FTA 체결 확대를 통한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 중
 - * 2018년 EU-싱가폴 FTA 체결·EU-일본 EPA 시행, 2019년 EU-베트남 FTA 체결·메르코수르(Mercosur) FTA 타결,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공동체와도 FTA 협상 및 타결 진행 중

주요국의 대(對)벨기에 경제협력 현황

- 벨기에는 세계 11위의 수출국이자 14위의 수입국으로 수출입 규모가 GDP의 170%에 달하는 대외 교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지닌 교역강국
- EU 역내 교역 중심의 수출입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교역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으로 상위 4개국과의 교역이 전체 수출입의 50%를 차지
- 일본의 경우 벨기에의 연구 인프라와 인력을 활용한 R&D 센터 설립 중심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은 자금을 활용한 운송경로 확대와 산업단지 및 시설에 투자 활발

주요국의 대(對)벨기에 협력 현황

국가	경제협력 전략 및 진행사항
EU	• 벨기에의 3대 주요 무역국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이며,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들이 EU 국가 • EU를 포함한 유럽 내 산업별 협단체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지사들이 벨기에에 위치하여 유럽 단위의 정책 및 프로젝트들이 수립 • 2018년 벨기에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641억 달러(유럽 내 FDI 순위 5위)이며, 주요 투자 분야는 비즈니스 서비스, 운송·물류, 농식품, 디지털 분야 순
중국	• 1971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벨기에는 유럽연합 내 중국의 7대 무역국으로 2018년 양국 간 총 교역액은 260억 달러 • 2004년과 2007년 China-Belgium Direct Equity Investment Fund(산업협력기금)설립하여, 중소기업 투자와 벨-중 직접 주식 투자기금을 조성. 2018년 벨기에의 대(對)중국 투자액은 20억 달러(화학, 제약 및 전자장비 부문)이고, 중국의 대(對)벨기에 투자액은 6억 6천 5백만 달러(EU 내 11위). 중국 COSCO 해운사와 Shanghai Lingang Group이 벨기에 앤트워프와 지브뤼헤에 항구시설 및 산업단지 설립에 투자.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Alibaba는 벨기에 리에주 공항 인근에 물류센터 설립 계획 발표 • 2017년부터 중국 대칭시와 벨기에 지브뤼헤, 정저우와 리에주 화물철도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베이징·상하이·선전 등 중국의 주요 도시와 벨기에 브뤼셀 직항 항공편 운영 중
일본	• 일본은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벨기에에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2018년 수입 10위 국) 주요 수입품은 자동차(51.9%), 기계류(16.9%) 등 • 1973년 에어컨 제조사인 Daikin은 일본기업으로서 최초로 플랑드르 지역에 EMEA 본부, 생산거점 및 R&D 센터를 운영해왔고, 2017년에는 2억 5천 5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초현대식 연구시설을 추가 확장 • 1966년 첫 벨기에 시장에 진출한 Toyota Motors는 1969년 영업사무소 개소, 1987년 기술센터 설립, 1990년부터 총 70억 유로를 투자하여 유럽 지역 본사를 운영 중 • 2018년 제약 및 메디테크 기업인 Nipro는 벨기에 메헬렌에 2,400만 유로를 투자하여 EMEA HQ 및 의료센터(iMEP)설립

벨기에 시장의 변화와 기회

◆ 벨기에 시장은 브렉시트, 무역 분쟁 등 불안정한 통상 환경에도 불구하고, FTA 확대, 투자유치 증가를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브렉시트

- 브렉시트로 인하여 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가, 유로존 내 수출입감소 예상. 영국은 벨기에 수출 시장 8%, 수입 시장 5%를 점유하고 있는 5대 교역국이자 대(對)벨기에 외국인 직접투자 4위의 투자 주요국(2018년 투자 건수 25건)



FTA 확대

- 2018년 EU-싱가폴 FTA 체결 · EU-일본 EPA 시행, 2019년 EU-베트남 FTA 체결·메르코수르(Mercosur) FTA 타결, 아프리카 지역별 경제공동체와도 FTA 협상 및 타결 진행 중



소비증가
부동산활황

- 법인세 인하에 따른 국내 투자 확대와 기업의 사회보장 지출 부담 축소 등으로 인한 고용상황 개선, 소득세 감면에 따른 소비심리 증대로 안정적인 성장예상

☞ 브렉시트에 따른 수출입 대체 시장 선점 기회 모색

- 전체 수출입의 50% 이상이 EU 역내 교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유로존 지역의 교역 감소로 수출실적 악화 및 교역지연 등 부수적 피해 예상
- 벨기에의 대(對)영국 주요 수입품목은 광물성 연료(21%), 자동차(19.2%), 기계류(8%), 유기화합물(7%), 의약품(4%), 플라스틱(4%)순으로 한국과의 주요 교역 산업과 중첩하여 기존 거래선 확장 노력 및 기업 간 협력관계 증대를 통한 대체 시장 선점 기회 모색 필요

☞ 실업률 감소, 소득세 인하 등으로 인한 가처분 소득 증가로 내수 소비 안정화 전망

- 고용안정과 실질임금의 상승, 소득세 감축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로 민간소비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화장품, 가전제품, 기타 생활용품 등 주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노력

* 소비재 전 분야에서 친환경, 자연주의, 유기농 제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지속 증대 K-POP,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접목된 소비재 품목 마케팅 경로 확대 가능

한-벨기에, 수교 30주년으로 경제협력 지속

- 1901년 공식 외교관계 수립 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 지속
- 벨기에에는 2차례 세계대전을 겪은 후 1950년대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당시 벨기에·룩셈부르크(벨룩스)는 총 944명으로 이루어진 2개 소대를 파견, 1955년 6월까지 총 3,000여 명의 벨기에 병력 지원

- 2019년 3월 벨기에 국왕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5G,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다방면의 경제협력에 합의. 특히 정상회담 중 각국의 장관들은 양국의 수출입증대, 중견·중소기업활성화, 산학협력 분야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양국 간 활발한 교류 기대
- 한-벨 모두 국토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전형적인 수출 의존형 국가로 고부가가치 제조업 투자 및 연구와 고급 연구인력 양성 등 협력관계 구축 기대

한국-벨기에 및 주요국 교역 / 투자 동향

1. 한국-벨기에 주요 교역품목 분석

2018년 대(對)벨기에 한국 교역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건설 중장비	688	기타 정밀화학 원료	238
2	합성수지	314	의약품	138
3	승용차	288	기타 정밀화학 제품	101
4	아연도강판	273	합성수지	83
5	윤활유	144	기타 석유화학 제품	64

2. 대(對)벨기에 한중일 수출 상위 5개 품목(HS코드 2단위, 2018년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한국	자동차 및 부품	철강류	기계 및 부품	플라스틱 제품	유기화학물
중국	기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신발, 구두 류	유기화학물	의류 및 액세서리
일본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및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유기화학물	광학 및 의료기기

- (수출경합도) 대(對)벨기에 수출 상위 5대 품목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은 2개 품목이 겹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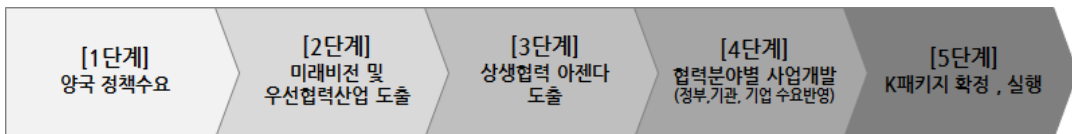
3. 한벨 투자진출 현황(2018년 기준)

- 벨기에의 대(對)한국 투자는 2018년 총 8건, 투자금액은 1억 7천 7백만 달러로, 주요 기업으로는 Solvay(화학), Umicore(화학), UCB(제약), Gent 대학교(교육) 등. 2014년 벨기에 세계 1위 맥주기업인 ABInbev가 OB맥주를 인수
- 한국의 대(對)벨기에 투자진출은 2018년 총 25건, 투자금액은 2억 6천 7백만 달러로 주요 투자 분야는 부동산, ICT, 건설 등

부록

나. 한-벨 상생협력 미래비전 도출

B2B 중심 Win-Win 협력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 한국과 벨기에의 강점을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벨기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제도개혁 추진 → 『기업 환경 개선 및 일자리 확대 최우선 목표』

벨기에의 협력수요 분야

협력분야(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화학	◆ 화학 신소재 개발 공동 R&D 추진
제약	◆ 제약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등 R&D 협력
신재생에너지/환경	◆ 화학, 제약 분야 고급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교류
ICT	◆ 신재생에너지, 환경 프로젝트 추진 협력
반도체 부품	◆ ICT, 스마트 시티 등 4차 산업 분야 협력
화장품 및 소비재	

* 2019년 3월 벨기에 국왕 국빈 방한 시 양국 간 5G,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 등 다방면의 경제적 협력 확대를 협의하였으며, 특히 산학협력 분야 교류확대 기대

벨기에의 권역(국가)별 협력수요

권역(국가)	내용
EU	• EU 역내 교역이 벨기에 전체 교역의 50% 이상을 차지 •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서 EU 통합화·단일화 지속 확대
미국	• EU 역외 최대 FDI 유입국이자 교역국으로 무역·투자 협력 확대
중국	• 대규모 자금 활용 운송경로 확대와 산업단지 및 시설 투자 활발
일본	• R&D 센터 설립 중심의 경제협력 도모

 **우리나라는 EU 시장 진출관문, 화학 제약 분야 투자유치대상국으로 벨기에에 대한 관심**

주요 협력대상 분야의 우리나라의 역량

협력분야(산업)	구체적인 수요(협력방향)
화학	◆ 제조기술·생산능력 전 세계 최상위국
제약	- Bloomberg Innovation Index 2018, 5년 연속 1위 - 제약 분야 임상실험 등 협력 확대 필요
신재생에너지/환경	◆ 신재생 에너지 환경 분야 정책목표 및 방향 유사
ICT	◆ 전통적 ICT, 전자 정부, 스마트시티 강국
반도체	- IT/정보통신 국가기술력 세계 11위(Business Insider, 2017년 6월)



한-벨기에 미래비전 및 실현 전략으로서의 K패키지

경제협력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유럽의 중심지인 벨기에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주요 산업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대상과 방식의 다양화를 모색하기 위한 미래 공동 지향점 설정

주요 협력분야	화학, 제약, 반도체, 신재생에너지/환경
주체별 협력방안	(정부) 정책공유, 제도적 기반 구축 (기업) 기업 간 공동 R&D 추진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중심 협력 및 진출 확대



정책 공유 및 인력교류 등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기반구축
주요 핵심 산업 중심으로 양국 간 산업협력 확대

II. 주체별 상생협력 과제와 실행방안

가. [G2G] 양국의 상생협력 확대 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등 공동 관심 분야 정책 공유 및 협력 기반 마련

① 스마트시티 정책공유 등 협력기반 마련

- (정책 수요) 2019년 3월 한국을 방한했던 벨기에 필립국왕은 스마트시티 기술 및 정책에 특히 관심을 갖고, 향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
 - 유럽투자은행과 벨기에 은행 Belfius는 2014년 이후 10억 유로 규모의 121개의 스마트 시티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위해 4억 유로의 추가 투입을 결정
 - 브뤼셀, 안트워프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2014년 전후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중·소도시들도 행정업무 등 일부 분야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조금씩 활용하고 있는 단계임
 - 벨기에 연방 정부는 2015년 Digital Belgium 액션플랜을 발표, 지방정부 또한 이를 반영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핸드폰 앱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
- (협력 방안)
 - 한국의 스마트시티 추진 관련 서울시 등의 정책 및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스마트 시티 구축 솔루션에 대한 비전 및 방향 제시
 - 벨기에 각 도시에서 진행 중인 에너지, 물류, 교통 등 세부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구현방향 모색
 - 벨기에 플란더스 지방정부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전담 연구기관인 Imec과 스마트 센터, 공동데이터 수집 등 공동 기술 개발 프로젝트 추진

② 일자리 창출, 인력난 해소 등 상호 수요 기반 인력교류 기반구축

- (정책 수요) 벨기에 최대 산업인 화학 분야 등 전문 분야에서의 고급인력 부족현상과 우리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해외취업지원 수요를 상호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력교류 추진
- (협력 방안) 전문 산업 분야 중심 벨기에의 고급인력난에 대한 현황 정보 공유, 한국 우수인재의 벨기에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한 벨기에 정부와의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마련 등 협력관계 구축

나. [B2B] 양국 기업 간 산업 협력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산업혁신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① 화학 산업 협력 및 실행방안

- 세계 최대 규모의 벨기에 석유화학 클러스터에는 글로벌 화학 기업의 ¼이 진출해 있으며, 720여 개의 화학기업에 30만 명이 종사
-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 총매출액은 650억 유로로, 국민 1인당 화학 플라스틱 제품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

◦ (시장 수요) R&D 투자지속, 인수합병, 투자 등 협력기회 다대

- 화학 산업은 벨기에 제조업의 1/3을 차지하며, 국가 전체 R&D 투자액 및 민간투자액의 상당 부분이 투입되는 벨기에 최대 산업으로 지속적인 투자 및 다국적기업과의 협력이 진행 중
- 화학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신소재, 신물질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투자유치가 활발
- 2018년 벨기에 화학 산업의 고용은 전년 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이공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2019년 5월 기준, 관련 산업 내에서 1만 2,000여 개의 직업이 공석

◦ (협력 방안) 세계적인 화학 클러스터 활용 산업협력 확대

- 한국은 2018년 전 세계 화학제품 수출 6위의 화학선진국으로(벨기에는 3위) 경쟁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산 제품이 경쟁력이 있으며, 엘지, 한화 등 대기업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나 중계무역이 발달한 벨기에의 시장 특성상 수입유통업자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도 충분히 가능
- 환경규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강조되므로 현지 시장 내 규제와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
- 규정, 분석 및 연구, 교육 분야에서 한국 청년 및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취업지원과 기술협력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

② 제약 및 바이오산업 협력 및 실행방안

- 전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중 29개사가 벨기에에 진출, 유럽 내 바이오테크 기업 시가 총액의 23% 점유. 2018년 벨기에의 의약품 수출액은 430억 유로로 전체 수출액의 10%를 차지하며, 약 32,000명의 근로자가 종사 중
- 제약 산업은 벨기에 제조업의 13%를 점유하고 있는 주력산업으로 벨기에 정부는 제약 산업의 혁신 연구개발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 및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시장 수요) 희귀질환 및 암 치료제 등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물질 개발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 증가
 - 벨기에에는 글로벌 신약 후보물질의 5%를 보유하고 있으며, 1인당 임상실험 수 유럽 내 1위 (전 세계 2위) 국가
 - 제약 산업은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개방형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소 제약 기업 및 연구기관들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하여 선두기업과 기술협력
 - * 상위 20개의 제약기업이 전체 시장의 63% 점유
- (협력방안) 신약 개발 기술 협력 및 EU 수출 거점 구축
 - 벨기에의 우수한 R&D 환경과 한국의 기술력,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체계 구축 가능
 - 한국기업은 벨기에의 견고한 바이오 의약 산업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위탁 생산 및 개발, 신약 및 바이오 시밀러의 임상실험을 시행하고, 유럽 시장 진출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진단용 의료기기와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생산, 간 기능 개선제 등이 유망

3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산업협력 및 실행방안

- EU 재생에너지 지침에 따라 벨기에 정부는 에너지 2050 정책* 시행
 - *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2030 원자력 발전소 폐기, 2030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공동 기술개발 협력 및 상호 시장 진출기회 발굴

- (시장 수요)
 - 205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용률 100% 달성을 목표로 실행방안을 수립, 2025년 탈원전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폐기, 2030년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예정
 -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202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 중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2030년 이후 50%까지 점유율을 증대시킬 계획
 - 2018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규제 중이며, 2021년 이후 빨대, 1회용 식기, 식품포장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됨. 2025년까지 플라스틱병 90% 이상 분리수거 및 식품포장재 25% 사용 감축을 목표로 함
- (협력 방안)
 -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 에너지 생산·저장 시설의 설비 및 부품, 설비 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을 위한 필수 제품으로 벨기에는 2017년 최초 산업용 ESS 설치 후 가정용, 산업용 설치 사례 지속증가로 현지 EPC 역할이 가능한 에이전트 발굴 및 협업을 통한 진출 확대 필요
- 빨대, 음식포장재료 등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상품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1회용 플라스틱 대체 품목에 대한 개발 및 마케팅 협력 추진

4 ICT 산업협력 및 실행방안

- 벨기에 ICT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135억 유로이며, 인터넷 보급률 100%
- 5G 네트워크 구축 및 5G 활용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자 서비스, 5G 가입자 전용개발 앱 개발계획 수립 등 5G 도입 사전준비 진행 중

- (시장 수요) 벨기에 정부는 2015년 'Digital Belgium' 정책을 발표하고, ICT 제반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 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2년 내 5G 상용화를 추진 중
 - 2020년 5G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주요 통신사들은 서비스 기획 및 준비단계에 있으므로, 서비스 시작을 기점으로 5G 기반 소프트웨어, 콘텐츠 시장 수요 급등 예상
- (협력방안)
 - 5G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로 벨기에 주요 통신사들과 협력 기회 모색
 - 5G 상용화시 TV 스크린과 핸드폰 화면을 AR/VR 장비가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관련 수요증가 예상, AR/VR 장비 및 이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현지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진출 모색

5 반도체 소재개발 협력 및 실행방안

- 세계 최고의 반도체, 나노, 디지털 기술연구 허브인 IMEC 연구 인프라를 활용, 반도체 부품소재개발 협력 추진
 - * 아이맥(IMEC, nteruniversitair Micro-Electronica Centrum VZW) : 아이맥(IMEC) : 벨기에의 나노일렉트로닉스 및 디지털 기술 R&D 허브로 벨기에 정부의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산업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84년 비영리단체로 설립. 2016년 디지털 리서치 센터인 iMinds와 합병하여 글로벌 첨단 연구단지로 자리매김

- (시장 수요) 벨기에 뤼벤의 24,400m²의 대지에 위치한 IMEC 연구단지는 실험실, 고가의 장비, 97개국에서 온 약 4,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갖춘 우수한 인프라로, 이를 활용한 반도체 소재 개발 추진

○ (협력방안)

-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한국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는 반도체 칩 생산 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투자와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설비와 소재개발의 국산화를 위해 IMEC과의 협력 및 성공전략 벤치마킹 필요
- 한국 정부는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여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검토 중이며, 벨기에의 성공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실효성이 있는 한국형 테스트 베드설립 필요

Ⅲ. 향후 對벨기에 K패키지 실행체계(안)

① 양국 정책협의회 등을 통한 이행 가능성 지속 점검

- 정부 간 정책협의회 개최 → 향후 정례적 개최를 통한 의제 발굴 및 협력 점검 체계로 활용 필요
- 향후 양국 간 장관급 협력조직으로 가칭 ‘한-벨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야별 실행체계 구축 필요

* 협력분야와 협력 산업에 대한 계획, 실행, 점검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② KOTRA를 KBP(Korea Business Center)화 하여 B2B 협업 활성화

- KOTRA 무역관이 중심이 되어 B2B 관련 과제들을 실행
 - * G2G 과제는 대사관이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 중기적인 관점에서 KOTRA를 KBP로 확장하여 운영
- 중장기적으로 물리적 Shared Service Center 구축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순방 시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 차원 K패키지 마련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쉼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향후 한-벨 정상 회담 시, K패키지 내용을 공동성명 형태 발표

* 양국 정부 부처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윤희정	차장	브뤼셀무역관	+32-2-205-0089	heejung19@kotra.or.kr
2	심은정	대리	브뤼셀무역관	+32-2-205-0083	inji.sim@kotra.or.kr

KOTRA자료 20-040

2020 국별 진출전략 벨기에

발 행 인 권평오
발 행 처 KOTRA
발 행 일 2020년 1월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02) 1600-7119(대표)
홈 페이지 www.kotra.or.kr
문 의 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186-9(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